

행동의 기준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위시인은 유고시집 한편으로 대시인의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생존시에 문인으로 자처하지도 않았고 문단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흔한 동인회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문단 친구도 없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시집이 발간되면서 사후의 훈장 처럼 그에게 시인의 타이틀이 붙여졌고 그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2년 징역형을 받고 옥사했다고 해서 '저항 시인'이라는 '덤'까지 붙여 주었다.

1918년에 태어나서 45년 해방을 6개월 앞둔 2월 16일 27세의 나이로 옥사한 그는 참으로 여한이 많은 일생을 산 인물이다. 우선 그는 장가를 한 번도 못 가 보았다. 공부한다고 일본을 오락가락 하다가 결혼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결혼을 해볼까 하다가 그만 감옥살이 신세가 되었고 감옥에서 사망하니 물론 혈육이 있을 리 없다. 생존시에 '시인' 소리를 못 들은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직장이란 것도 가져 보지 못했다. 그 시절 남자 나이 20세 전후가 되면 결혼하고 취직해서 남자로서 갖출 것은 대충 갖추는 것이 관습인데 그는 문학 공부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모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성격이 무섭도록 침착한 그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일은 전혀 오불관언이었다. 그는 자기 작품에 대해 지나치게 결벽증이 있었다. 다듬고 또 다듬고 해서 완벽하다고 스스로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보여주지 않았다. 또 그는 작품을 무슨 잡지에 발표하기를 몹시 꺼려했다. 남들이 그 작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해설을 붙이는 것을 그는 불쾌하게 여겼다. 하얀 항아리에 흙칠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생시에 이처럼 작품 발표를 하지 않다가 그가 사망한 이듬해 경향신문에 위의 쉽게 씌어진 시가 발표되었고 2년 후인 48년 1월에 그의 시 30여편을 수록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간되었다. 그래서 윤동주는 '죽어서 시인이 된 시인'이다."

윤동주와 나는 인현이 깊다. 물론 일방적인 인현이기는 하다. 나는 1976년도 중 3 때 호주에 부모님들과 들어와 대학들여가기 3-4년 동안은 한국친구는 거의 없이 호주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랐다 (태국 외국인 학교에서 3년을 보낸 영어가 원만 하였기도 했지만 서양인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했던 것 같다). 호주에서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이 유난히 멍하고 맹한데 내가 봐도 나는 특히 그랬던 것 같다. 내가 어터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 문이었다. 주위의 호주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의 동물원 원숭이가 되는 느낌 이였고 그러자니 주위의 한국인 (아니 그때 호주의 모든 동양인) 은 이민 초창기의 절박한 생활을 유지 해나가는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보고 배울것이 없어 보였다. 솔 직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다. 행동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무엇 이다 는 것을. 아마 호주 원주민들은 이해를 할 것 같다.

다행히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 행동의 기준을 아주 서서히 찾기 시작 하였다. 아마 그때 친구들이 아마 나 때문에 많이 피곤해 했지만 그래도 따듯하게 대해줘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철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나의 와이 프는 자기 때문에 내가 사람 됐다고 완고 하다. 어찌 하였던 다 고마울 뿐이다. 그 때 윤동주가 나에에 끼친 영향은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어느날 우연히 받아본 윤동주의 시집은 나에게는 하나의 파라다임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영어로 된 시인들에게서 전혀 느낄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고 세상에 고귀한 것 이 있다는 것을 어렵푸시 느끼게 되었다. 나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 아닐수 없 었다. 솔직히 그때서부터 나는 나의 민족과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고 서양인과 그들 사회부터의 인정을 그리 중요시 하지 않게 되고 나의 행동의 기준이 서기 시작 하 였다. 나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